

袁宏道 游記산문의 '新奇'와 수사기교*

남덕현**

【목 차】

1. 머리말
2. '新奇' 창작기교와 수사
 - 1) '신기' 창작기교
 - 2) 유기산문의 수사기교
3. 맺음말

【초록】

만명시기 대표적 문학이론가인 원굉도는 예술성 높은 유기산문을 많이 창작하였다. 그의 문학작품 창작론의 주요 방법은 '직기(直寄)'와 '신기(新奇)'의 창작이론이다. 그는 직기와 신기의 창작기교를 잘 활용하여 좋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였다. 직기의 창작기교는 주로 자연경관의 묘사와 인물이나 사물의 형상표현 또는 사람의 감정 표현 등에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경관을 서술한 부분을 보면 직기는 물론 신기의 창작기교를 활용하여 생동감 있는 표현을 하고 있다. 직기의 창작기교는 주로 직유의 수사기교를 사용해 표현되고 있고, 신기의 창작기교는 직유 은유 의인 등의 다양한 수사기교를 사용해 표현되고 있다.

원굉도 유기산문의 자연경관 표현에 보이는 신기의 창작방법에 바탕 하여 활용되어진 직유 은유 의인 등의 주요 수사기교를 살펴보면 원굉도 유기산문의 예술적 수준을 잘 알 수 있다.

【키워드】 원굉도, 원굉도 문학창작론, 신기 창작론, 원굉도 유기산문, 원굉도 유기산문의 수사기교

* 이 논문은 2017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dhman@pusan.ac.kr)

1. 머리말

원굉도 문학작품 창작론의 주요 방법은 ‘직기(直寄)’와 ‘신기(新奇)’의 창작이론이다. 그는 문학 작품을 창작할 때 그 구체적 방법으로서 직기와 신기의 창작기교를 인식하고 이를 그의 유기산문 작품창작에 잘 활용하였다. 원굉도가 말하는 직기란 진실성을 추구한 것이고, 신기는 가변성에 바탕 하여 작품 속에서 매우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여 작품의 본질에 대한 묘사와 서술에 활용한 창작기교이다. 이런 창작이론을 유기산문 창작에 가장 적절한 수사기교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묘사하려 하였는데, 그의 작품을 살펴보면 직기의 기교는 주로 직유의 수사기교를 사용하여 자연경관의 묘사와 인물이나 사물의 형상표현 또는 사람의 감정 표현 등에 활용되고 있다.¹⁾ 특히 자연경관을 서술한 부분을 보면 직기의 기교뿐만 아니라 신기의 기교가 잘 활용되어져 다양한 수사기교를 통해 보다 더 생동감 있는 묘사와 표현을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원굉도 유기산문에서 자연경관의 표현에 보이는 신기의 창작방법에 바탕 하여 활용되어진 직유 은유 의인 등의 주요 수사기교를 살펴 원굉도 산문의 예술적 성취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新奇’ 창작기교와 수사

1) ‘신기’ 창작기교

신기의 창작기교에 대한 원굉도의 견해를 살펴보면²⁾, 먼저 원굉도는 「풍시랑좌주(馮侍郎座主)」에서 신기의 창작기교의 근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새로운 것을 드날리고 기이한 것을 드러내는 것은, 자연스레 손과 눈에서 나온다.
翻新出奇, 自出手眼.³⁾

라고 하고 있다. 이는 곧 문학이란 창작에 있어 새로운 것을 드러내고 기이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결국 작가 자신의 손과 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 나와야 한다는 본질적인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본질적인 명제에 부합하기 위해 원굉도는 문학 창작에 있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변화 추구의 측면에서 신기의 창작기교를 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답이원선

1) 남덕현, 「袁宏道 游記산문의 창작론과 수사기교 — ‘直寄’와 直喻를 중심으로」, 『中國研究』, 제67권,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2016.06 참조.

2) 남덕현, 「袁宏道の 창작이론 고찰」, 『中國研究』, 제39권,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2007.01, pp.137-140 참조 재구성.

3) 袁宏道 著, 錢伯城 箋校, 『袁宏道集箋校』, 上海古籍出版社, 1981, p.769.

(答李元善)」에서 이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문장이란 新奇이어야 하기에, 정해진 격식이 없으며, 오로지 사람들이 드러내지 못하는 바를 드러내어야 하며, 구법, 자법, 조법 하나하나가 자신의 가슴 속에서 흘러나와야, 이것이 진정한 신기인 것이다. …… 만약 그저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보는 것을 함께 구하고, 똑같은 나날들을 보낸다면, 사람들이 쫓아가는 바를 나 역시 쫓아가게 될 것이다. 이는 누린내 나는 고기를 쫓아가는 것과 같으니, 즉 이것이 바로 소인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文章新奇, 無定格式, 只要發人所不能發, 句法字法調法, 一一從自己胸中流出, 此真新奇也. …… 若只同尋常人一般知見, 一般度日, 衆人所趨者, 我亦趨之, 如之逐羶, 卽此便是小人行徑矣.⁴⁾

이 글에서처럼 원굉도는 진정으로 좋은 문장이란 신기하고 기이하며 어떤 정해진 격식이 나 틀이 없고 오직 사람들이 드러내지 못하는 바를 표현해내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법, 자법, 조법의 하나하나가 모두 작가 자신의 가슴 속에서 흘러나와야 이것이 진정한 신기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굉도가 말하는 신기는 특정한 격식에서 벗어나 가슴 속의 뜻을 표현함으로써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창작 방법이다.⁵⁾

원굉도는 또한 「희봉매계표(喜逢梅季豹)」에서 이러한 신기의 창작기교 활용을 통한 창작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뜻이 서면 새로운 형식이 나오고, 스스로를 다스리며 스스로 능력을 키운다.
立意出新機, 自治自陶鑄.⁶⁾

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원굉도는 작가가 작품을 창작함에 있어 스스로가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창작을 하겠다는 데에 대한 확실한 뜻이 서면 결국 거기에 걸 맞는 새로운 틀이 나오게 되고 또 작가 스스로가 그것을 키워내고 그 틀에 맞는 그릇을 만들어 내어 훌륭한 작품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원굉도는 「문의당기(文漪堂記)」에서 신기의 창작 방법을 물의 자유로운 모습과 속성에 비유하여 그 자연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무릇 천하의 사물 중에 물보다 문학다운 것이 없다. 갑자기 달려가다 홀연히 굽어지고, 하늘을 도는 구름같이 어두워지며, 순식간에 몇 천리를 가는지 알 수가 없다. 세밀함이 비단실 같고, 휘돌리는 것이 호랑이 눈알 같으며, 흘러갈 때는 하늘의 큰 띠가 되고, 멈춰 서면 큰 산의 옥이 된다. 뒤틀리면 용이 되고, 내뿜으면 안개가 되고, 들이 마시면 바람이 되고, 노하면 천둥 번개가 된다.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고 펼치기도 하고 움츠리기도 하며 달리고 뛰어올라서 온갖 형상이 이루어진다. 고로 천하에서 지극히 기이하고 지극히 변화 스러운 것이 바로 물이라 하겠다. …… 지금 저 산의 높고 낮음과 수려함과 꾸며짐은 문학답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높은 것이 낮아질 수 없고 완고한 것이 아양을 부릴 수 없으니 이는 죽은 물체인 것이다. 물은 그

4) 袁宏道, 앞의 책, p.786.

5) 鍾林斌, 『公安派研究』, 遼寧大學出版社, 2001, p.1.

6) 袁宏道, 앞의 책, p.387.

러하지 않다. 문학을 하는 마음과 물의 성질은 한 종류이나 형태가 다를 뿐이다.

夫天下之物，莫文于水，突然而趨，忽然而折，天回雲昏，頃刻不知其幾千里。細則爲羅縠，旋則爲虎眼，注則爲天紳，立則爲嶽玉，矯而爲龍，噴而爲霧，吸而爲風，怒而爲霆，疾徐舒蹙，奔躍萬狀。故天下之至奇至變者，水也……今夫山高低秀冶，非不文也，而高者不能爲卑，頑者不能爲媚，是爲死物。水則不然，故文心與水機，一種而異形者也。⁷⁾

라고 적고 있는데, 이 글에서 보듯이 원굉도는 물의 자유롭고 그 변화무쌍한 성질에 비유하여 문예와 문학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다. 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며 모든 형태를 만들어내고, 또 자연스레 모든 환경에 너무나 잘 어울리고 적응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 어느 곳에서이건 존재할 수 있는 속성처럼, 문학작품 창작도 작가의 모든 내적 창작요인이 신기의 창작기교를 통해 작품에 물처럼 자연스레 스며들어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원굉도가 태어나 자랐던 공안(公安)은 장강(長江) 부근의 강변이다 보니 그는 물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남달랐던 것 같다. 그는 물이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연에 적응하여 지극히 기이한 변화와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자연의 섭리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원굉도에게 있어서 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의 결정체이자 마음속에 하나의 심미적 기준이었기에 그는 물 위의 여행을 자신의 작품 속에 즐겨 썼던 것이다. 원굉도가 물의 아름다움을 숭상한 것은 심미적 부분에서 개성의 자유를 추구한 것으로 일종의 구속되지 않는 창작 상태를 추구한 것이라 보여 진다.⁸⁾

또 원굉도는 「개선사지황암사관폭기(開先寺至黃巖寺觀瀑記)」에서도 신기를 물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무릇 문장이란 축척되어진 것이 들어가 있다 기(氣)로써 표현되어 나오는 것이다. 지금 저 샘물이 깊으면서도 검고, 넓으면서도 고요한 것은 그것이 축척되어 있어 그런 것이다. 그러다가 그것이 바위에 부딪치어 가게 되면, 무지개가 날고 용이 나는 듯하고, 길게 끌어서 실모양이 되고, 감돌아서 바퀴 모양을 이루며, 뒤엎혀서 떠 모양을 이루고, 부딪쳐서 천둥소리를 이루게 된다. 고로 저 물의 변화는 기괴하게 변환하고 홀연 취합하는 데에 있어 그 형태가 있지 않는 것이 없음은 바로 氣가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지금 나와 그대가 함파구(含壩口)를 지나고 삼협간(三峽澗)을 건너며 냇물에 씻고 샘물 소리를 들었는데, 물이 넓고 크게 흐르며 고아한 것이 바로 육경(六經)인 것이다. 막혀있다 물결이 부딪쳐 흘러 아름답게 넘쳐나는 것이 바로 소부(騷賦)인 것이다. 그윽하고 기이하며 괴이하고 거대하며 변환되어지고 구부러진 것이 바로 자사백가(子史百家)인 것이다. 무릇 물의 모습 하나하나를 나는 곧 문장으로써 만나는 것입니다. 고로 슬픔과 웃음, 노래와 울음이 갑자기 물과 함께 펼쳐져 나와서 능히 스스로 그칠 수 없는 것입니다.”

夫文以蓄入，以氣出者也。今夫泉，淵然黛，泓然靜者，其蓄也。及其觸石而行，則虹飛龍矯，曳而爲練，匯而爲輪，絡而爲紳，激而爲霆，故夫水之變，至於幻怪翕忽，無所不有者，氣爲之也。今吾與子歷含壩，涉三峽，濯澗聽泉，得其浩瀚古雅者，則爲六經。鬱激曼衍者，則騷賦。幽奇怪偉，變幻詰曲者，則爲子史百家。凡水之一貌一情，吾直以文遇之，故悲笑歌鳴，卒然與水俱發，而不能自止。⁹⁾

7) 袁宏道, 앞의 책, p.685.

8) 鍾林斌, 앞의 책, pp.158-160.

9) 袁宏道, 앞의 책, p.1144.

라고 적고 있다. 위 글에서도 원굉도는 문학의 특성을 물의 속성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원굉도는 기본적으로 지식과 생활경험 등 모든 문학창작의 기본적 요소가 작가 내부에 축적되어 있다가 이것이 '기(氣)'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작품으로 표현되어지는데, 물처럼 자연스레 신기의 창작기교를 통해 표현되어져야 훌륭한 문학작품이 창작되어 진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즉 물의 변화처럼 문학작품의 창작과정 속에서도 신기의 창작기교와 같은 생동적인 사유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굉도는 물이 '시(時)'와 '변(變)'의 두 가지 속성을 지니며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원굉도가 문학이란 물이 환경에 따라서 냇물도 되고 호수도 되고 바다도 되듯이 시대나 작자에 따라 변화가 있어야한다는 자신의 인식을 표출한 것이다. 즉 호수나 강, 바다가 모두 물이지만 모양이나 형세가 다르듯이 문학 역시 다양성을 지니고 있기에 상류의 물이 하류로 갈수록 더 다양하고 풍부해지듯이 문학도 고대의 전통을 계승하여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게 발전해야 한다는 인식이다.¹⁰⁾

다시 말해 원굉도가 얘기하는 신기라는 것은 개성적인 성령을 자연스레 드러내어 물이 흘러가듯 문학 작품 속에 배어들게 하는 훌륭한 창작기교를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직기와 신기의 창작기교를 활용하여 창작되어진 결과의 최고 수준의 작품을 원굉도는 '감정이 지극한 말(情至之語)'라고 정의하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원굉도의 「서소수시(敘小修詩)」를 보면,

무릇 감정이 지극한 말은 스스로 충분히 사람을 감동시키는데, 이것을 일컬어 진정한 시라 하며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는 오히려 감정이 크게 드러난 그것을 잘못으로 여기는데, 일찍이 정을 따라 경계가 변하고 글자를 쫓아 정이 생겨남을 모르는 것이다. 단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걱정되는 것이지 어찌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을 걱정하겠는가?

大概情至之語，自能感人，是謂真詩，可傳也。而或者猶以大露病之，曾不知情隨境變，字逐情生，但恐不達，何露之有?¹¹⁾

여기에서 작가의 감정이 잘 드러나 최고의 단계에 도달한 것을 정의한 '감정이 지극한 말(情至之語)'이라는 말은 직기의 진실성에다 신기의 창작 기교를 활용하여 창작되어진 작품이 가장 높은 예술적 수준을 지니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직기와 신기의 창작기교로 창작된 작품이어야 진정으로 독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감화력을 지닌 훌륭한 작품이라고 원굉도는 생각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굉도는 문학의 '시(時)'와 '변(變)'에 대한 기본적 특성에 바탕하여 창작과정에 있어 진실성에 바탕 한 생동적인 신기의 창작기교 활용을 통한 문학 창작이 진정한 문학이라는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문학에 있어 옛 것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과 공간, 환경에 따른 변화를 인정하는 원굉도의 문학론은 이와 같은 신기의 구체적 창작기교를 통해

10) 김학주, 『중국문학사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pp.353-354.

11) 袁宏道, 앞의 책, p.188.

유기산문과 같은 실제 문학작품 창작에 보다 높은 예술성을 더해 주어 그의 문학세계를 한층 더 넓혀주고 있다 하겠다.

2) 유기산문의 수사기교

원굉도는 이런 신기의 창작기교를 그의 유기산문 작품창작에 잘 활용하고 있다. 그의 주요 유기산문을 살펴보면 신기의 창작기교는 다양한 수사기교를 통해 표현되고 있지만 특히 비유의 기교 중 직유와 은유의 수사기교와 의인의 수사기교가 작품 속에 가장 적절하게 잘 반영되어지고 있다. 그의 유기산문 속에 반영되어진 신기의 창작기교에 바탕 한 수사기교를 직유와 은유 의인의 수사기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작품을 통해 살펴보겠다.

(1) 직유(直喻)

비유의 수사기교는 유기산문에서 주로 경물을 묘사할 때 많이 활용되어 지는데, 비유 중에서도 특히 직유의 수사기교가 그러하다. 원굉도 또한 유기산문에 비유의 수사기교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그 역시 직유를 많이 활용하였다. 원굉도 유기산문에서 직유의 수사기교는 대체로 직기의 창작 기교를 통해 많이 표현되어졌다. 이런 직유의 수사기교는 신기의 창작기교를 통해서 더욱 생동감 있게 예술적으로 잘 표현되어지고 있다.

원굉도는 「화산후기(華山後記)」에서 화산의 전체적 산세 모습을 남쪽의 낙안봉(落雁峯)과 동봉인 옥녀봉(玉女峯)에 이어 서봉인 연화봉(蓮花峯)의 형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서봉은 가장 그윽하고 깊은데, 바위의 형태가 생동적이고, 연꽃의 꽃잎 같이 생긴 바위 잎이 있어서 벼랑의 꼭대기를 덮고 있고, 그 아래는 거북이가 멈춰 서서 고개를 쳐들고 마치 어디론가 가려하는 듯하다. 잎을 덮고 있는 물건 이것이 곧 이른바 연꽃 봉우리(蓮花峯)이다.

西峯最幽奧，石態生動，有石葉如蓮瓣，覆崖巔，其下有龜却立，昂首如欲行，蓋葉上物也，是卽所謂蓮花峯矣。¹²⁾

이와 같이 원굉도가 화산 서쪽 봉우리인 연화봉의 모습을 신기의 창작방법을 통해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는데 ‘如’를 사용한 직유 수사기교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연꽃잎을 연상시켜 연화봉이라 불리는 봉우리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원굉도는 이와 같이 ‘如’를 사용한 비유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若’을 작품 속에 함께 사용한 직유의 비유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원굉도의 「천목 일(天目 一)」을 보면, 이 작품에서 원굉도는 천목산의 빼어난 절경을 일곱 가지로 소개하고 있다. 일곱 가지 중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네 가지 절경을 ‘如’와 ‘若’을 사용한 직유의 비유방법으로 그 특징을 꼭 집어서 묘사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12) 「華山後記」, 袁宏道, 앞의 책, pp.1471-1472.

천목산은 온 산에 골짜기가 있어 나는 듯 흘러 내려가는 물줄기가 마치 일만 필의 명주 비단과 같다. 이것이 첫 번째 절경이다. …… 내 귀는 천둥소리를 좋아하지 않는데 천목산의 천둥소리는 아주 작아 듣고 있으면 마치 갓난아기 소리 같다. 이것이 네 번째 절경이다. 새벽에 일어나 구름을 보니 구름이 깎아지른 골짜기 아래로 걸쳐 있는데 희고 깨끗한 것이 마치 면(綿)과 같고 거침없이 흘러가는 것이 마치 파도 같아서, 대지 전체가 온통 유리(琉璃)의 바다가 되어 모든 산이 빠죽이 솟아나 있는 데 마치 구름 위의 부평초 같다. 이것이 다섯 번째 절경이다. …… 산의 나무 가운데 큰 것은 거의 사십 아름이나 되고, 소나무의 모습은 마치 지붕 같고 높이는 몇 자를 넘지 않는데, 한 그루의 값이 일만여 전은 될 듯하다. 이것이 여섯 번째 절경이다.

天目盈山皆壑，飛流淙淙，若萬疋縞，一絕也。……余耳不喜雷，而天目雷聲甚小，聽之若嬰兒聲，四絕也。曉起看雲，在絕壑下，白淨如綿，奔騰如浪，盡大地作琉璃海，諸山尖出雲上若萍，五絕也。……山樹大者，幾四十圍，松形如蓋，高不踰數尺，一株直萬餘錢，六絕也。¹³⁾

라고 적고 있다. 원평도는 이 글에서 그의 눈에 비쳐진 천목산의 첫 번째 절경으로 거침없이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꼽고 있다. 그는 이 광경을 일만 필의 흰 비단에 비유함으로써 물줄기가 하얗게 부서지며 드넓게 도도히 흘러가는 아름다운 경관을 자연스레 떠올리게 하고 있다. 흘러내려가는 물줄기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일만 필의 비단이 필력이는 형상에 비견한 것은 신기의 창작방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천목산의 산 속에 울려 퍼지는 거대한 천둥소리를 네 번째 절경으로 꼽았는데, 실제로 그 거대한 소리를 갓난아기 소리 같다고 하며 매우 작은 소리라고 귀엽게 표현하고 있다. 무섭고 시끄러운 천둥소리를 좋아하지 않는 자신이 듣기에도 부담되지 않는 아늑한 작은 소리로 들린다고 묘사함으로써 오히려 천목산 산세의 웅장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주고 있다. 신기의 창작 방법을 통해 천둥소리의 음향적 형상을 직유의 수사기교를 통해 문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다섯 번째 절경에서도 구름과 산의 모습을 비유로서 나타내고 있다. 구름위로 빠죽빠죽 드러나 있는 산의 형상을 부평초가 떠있는 모습에 비유하고 있고, 여섯 번째 절경인 수목이 크고 짙어 꽤나 값나갈 만한 멋진 나무들의 울창함을 지붕과 같다고 비유한 것 역시 대단히 문학적이고 형상적이다. 이처럼 원평도는 그의 눈에 비쳐진 멋진 천목산의 광경을 신기의 창작기교를 통해 사유의 나래를 마음껏 펼쳐 결국 직유의 수사기교를 사용하여 문학작품으로 표현해 내고 있는 것이다.

원평도는 「만정유기(滿井遊記)」 작품에서 겨울이 지나 막 봄이 시작되는 만정의 정경을 너무나 문학적으로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높은 버드나무가 제방을 끼고 서있고 땅도 기름져 축축이 젖어있는데, 한차례 둘러보니 광활한 것이 마치 새장을 벗어난 고니가 된 기분이다. 이때 얼음이 비로소 녹기 시작해 물빛이 갑자기 밝아지고 물고기 비늘 같은 물결이 층층이 일렁인다. 물은 맑아 바닥까지 보이고 반짝이는 것이 마치 거울을 처음 열었을 때 맑고 투명한 빛이 작은 상자에서 비쳐 나오는 것 같다. 얻어진 산들이 맑은 눈으로 씻겨 가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은 마치 닦아서 깨끗하게 한 듯하다. 아리따우면서 예뻐오니, 마치 아리따운 여인이 얼굴을 씻고 틀어 올린 머리를 막 매만지는 듯하였다.

13) 「天目 一」, 袁宏道, 앞의 책, p.454.

高柳夾堤，土膏微潤，一望空闊，若脫籠之鵲。於時冰皮始解，波色乍明，鱗浪層層，清徹見底，晶晶然如鏡之新開，而冷光之乍出於匣也。山巒爲晴雪所洗，娟然如拭，鮮妍明媚，如倩女之釵面，而髻鬢之始掠也。¹⁴⁾

원굉도가 봄날이 되어 만정에 이르러보니 계절의 변화가 한 순간에 느껴졌다. 이 순간 마주한 광경에서 느낀 감정을 한마디로 새장을 벗어난 고니에 비유하여 마치 거울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한껏 보여주는 것 같다. 봄의 시작으로 얼음이 녹기 시작하여 움직이는 물결의 모습을 물고기 비늘 같은 작은 움직임이 일렁인다고 묘사하고 있다. 이 때의 맑은 물의 모습을 거울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의 모습과 물의 맑고 투명한 형상을 거울의 이미지에 투영하여 표현한 것이다. 또 녹아내리는 맑은 눈에 씻기어 청순하기만 한 산들의 새로운 모습은 마치 일부러 깨끗이 닦은 듯 하다고하며 그 깔끔한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동시에 그 고운 자태를 얼굴을 씻고 새 단장하는 여인네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다. 봄을 맞이하여 변화하는 자연의 순간순간 경관의 아름다운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원굉도는 신기의 창작방법을 활용하여 만정에 봄이 오는 역동적인 광경을 ‘如’와 ‘若’을 사용한 직유의 수사기교를 통해 생동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만물의 변화하는 역동적 모습을 형용하고 표현함에 원굉도는 신기의 창작방법을 잘 활용하였다.

원굉도는 「연화동(蓮花洞)」 작품에서 호수를 거울에 비유하며 그 정경을 잘 표현하고 있다. 살펴보면

연화동(蓮花洞) 앞에 거연정(居然亭)이 있다. 정자가 넓게 트여 멀리 볼 수 있다. 매번 올라가 바라볼 때마다, 서호의 빛이 푸르름을 보여준다. 수염과 눈썹, 형태와 그림자가 마치 거울 속에 비치는 듯 하다. 육교(六橋)의 버드나무는 휘감아 도는 것이 바람을 이끌고 물결을 끌어오는 것 같아 드문드문하지만 사랑스럽다. 비가 그치거나 달에 아지랑이가 끼면 풍경(風景)이 서로 다르니, 이것이 바로 정자사(淨慈寺)의 절경인 것이다. 연화동의 바위는 영롱하여 마치 살아 있는 듯하며, 정교함은 마치 조각하여 새긴 것보다 더 뛰어나다.

蓮花洞之前，爲居然亭，亭軒豁可望，每一登覽，則湖光獻碧，鬚眉形影，如落鏡中，六橋楊柳一絡，牽風引浪，蕭疎可愛，晴雨烟月，風景互異，淨慈之絕勝處也。洞石玲瓏若生，巧踰彫鏤¹⁵⁾

원굉도는 이처럼 거연정에서 바라본 너무나 맑은 호수의 모습 하나하나를 세밀하고도 정교하게 감성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 수면에는 호수 주변의 푸른빛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 물의 맑음은 수염 눈썹 하나까지도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이 투명하다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다. 거울 같다는 표현은 사실상 투명함의 최고의 상징적 표현이라 하겠다. 원굉도의 이러한 비유적 표현과 묘사는 직접 가보지 않은 사람도 연화동 호수의 광경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높은 수준이라 하겠다. 이처럼 같은 정치와 장면도 그 특성을 묘사함에 작가로서 드러내고자하는 개성적 사물의 표현이 다른 것이다. 원굉도는 신기의 창작기교를 통해 세밀하고도 다양한 모습으로 작품 속에 그 형상을 멋지게 ‘如’와 ‘若’ 직유의

14) 「滿井遊記」, 袁宏道, 앞의 책, p.681.

15) 「蓮花洞」, 袁宏道, 앞의 책, p.434.

수사기교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원굉도는 「비래봉(飛來峯)」에서 자연 경관을 여인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는데, 살펴보면

앞뒤에는 크고 작은 동굴이 네, 다섯 개 있는데 그 깊이가 훤히 보이며 방울져 떨어져 생긴 종유석(鐘乳石)이 꽃 모양을 이루어 마치 조각하여 새겨 놓은 듯하다. 벽 사이에는 불상(佛像)이 있는데 모두 양독(楊禿)이 만든 것으로, 마치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에 흉터가 있는 것 같아 기이하고 추하여 보기에 좋지 않다.

前後大小洞四五, 窈窕通明, 溜乳作花, 若刻若鏤. 壁間佛像, 皆楊禿所爲, 如美人面上癍痕, 奇醜可厭.¹⁶⁾

이처럼 원굉도가 비래봉의 경관을 특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동굴 안의 종유석(鐘乳石)을 마치 조각하여 새겨 놓은 듯하다고 하며 그 정교함을 느끼게끔 해주고 있다. 방울져 떨어져 생긴 종유석이 완벽한 꽃의 형상을 이루고 있음을 애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벽 사이 불상의 흉한 모습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신기의 창작방법을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여인의 흉한 얼굴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는데 비래봉을 미인으로, 불상을 흉터로 느껴진 자신의 눈에 보인 비래봉의 옥에 티 같은 광경을 개성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미인의 얼굴에 흉터가 있는 것에 비유하여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혼자 흉하기만 하다는 것을 애기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불상이 군신의 능묘 도굴꾼 양독(楊禿)¹⁷⁾이 만든 것이라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이 점은 비래봉의 아름다움을 해치고 깎아 내리는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원굉도는 이처럼 신기의 창작 방법을 통해 '如'와 '若'의 직유 수사기교를 사용해 비래봉을 여인의 형상에 비견해 그 형상적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처럼 원굉도는 비유의 수사기교 중 직유의 수사기교를 사용하여 유기산문 속 현장 사물경관의 사실성을 한껏 높여주고 있다. 이러한 창작 과정이 있기에 작품의 예술적 수준이 돋보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직유 수사기교의 활용은 그의 신기라는 높은 수준의 창작기교가 더해졌기에 높은 예술적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2) 은유(隱喻)

원굉도는 유기산문 창작에서 신기의 창작방법을 통한 직유의 수사기교를 사용하여 그 경관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표현해 내었을 뿐만 아니라 은유의 수사기교를 사용하여 우회적 간접적으로 그 특징을 표현하여 보다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원굉도는 「유려산기(遊驪山記)」에서 여산 산세의 웅장함을 의미 있는 표현으로 잘 나타내고 이어 옛 장안의 화려했던 시절을 노인과의 대화와 꿈을 통해 회고하였다. 여산을 표현한 부분을 살펴보면

16) 「飛來峯」, 袁宏道, 앞의 책, p.428.

17) 양독(楊禿)은 원대(元代) 서장(西藏) 승려로 송대(宋代) 군신(君臣)의 능묘(陵墓)를 파내어 보물을 훔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등 악행을 일삼은 인물이다.

여산(驪山)의 산은 울창하면서 푸르러서, 그 물줄기가 넓고 넓어 장안을 올린다. 오래된 잣나무가 뽕뽕하게 동서의 산봉우리를 가리고 있어서, 옛 궁궐의 터는 대부분 알아볼 수가 없다.

驪之山鬱然而青, 而其水浩浩然鳴九衢也. 古栢森然翳東西嶺, 故宮遺址, 多不可識.¹⁸⁾

여산은 옛날 장안 부근에 있던 산의 이름으로 양귀비가 목욕했다는 유명한 화청궁과 진시황의 묘지가 있는 산이다. 원평도는 이에서 보듯이 울창하고 푸르른 여산(驪山)의 산세가 웅장하고 깊음을 표현함에 있어 흘러내리는 물이 드넓게 장안을 올린다고 하며 은유의 기법으로써 묘사하고 있다. 이어서 오랜 잣나무의 우거짐을 화려하고 웅장했던 장안의 옛 유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임을 말하며 간접적 은유적 묘사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신기의 창작 방법을 통해 비유의 수사기교 중 은유의 기법을 사용해 여산 산세의 규모를 형상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원평도는 「후산(吼山)」에서 후산 석벽의 가파른 산세와 패어진 깊은 연못의 경관을 잘 표현해 나타내었는데, 살펴보면

후산 석벽은 모두 도끼로 깎아 이룬 것이어서 가파르게 깎여진 것이 높이가 백여인이나 된다. …… 위는 허공이고 아래는 못〔淵〕이어서, 문과 동굴이 깊고 그윽하게 멀리 돌아나갔고, 비가 온 뒤에는 공중을 나는 폭포(飛瀑)가 주름이 엮이듯 하여 떨어진다. 우리들은 바깥에서 바라보고는 홍을 억제할 수 없어서, 작은 배를 불러서 그 가운데서 노닐었다.

吼山石壁, 悉由斧鑿成, 峭削百餘仞. …… 上宇下淵, 門闔洞穴, 窈窕迂迴, 雨後飛瀑綴簾而下. 余等自外望, 興不可遏, 呼小舟遊其中.¹⁹⁾

원평도는 이와 같이 후산의 아름다움 경관 중 하나인 비 온 뒤의 백여인이나 되는 높이에서 가파른 석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수량이 풍부한 폭포의 모습을 엮이어진 주름이라고 하며 은유적으로 비유하고 있다. 신기의 창작 방법을 통해 비유의 수사기교 중 은유의 기법을 사용해 후산의 폭포 물줄기의 모습을 형상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원평도는 「화산후기(華山後記)」에서 화산의 경관을 잘 표현해 나타내었는데, 살펴보면

옥정(玉井)은 봉우리의 발언저리에 있고, 이십팔담(二十八潭)이 둥글게 돌아서 아래로 내려가니 곧 폭포의 상류이다. 한스럽게도 비 온 뒤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 산의 벽은 나무들이 마치 수놓은 무늬가 얹힌 것 같아, 새들의 말소리가 그 틈 사이에서 나오는 듯하니, 새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玉井在峯足, 二十八潭圓轉而下, 瀑布上流也, 恨不于雨後觀之. 山壁樹如錯繡, 鳥語從隙中來, 云無鳥者悞.²⁰⁾

원평도는 이처럼 화산의 웅장한 경관을 거시적으로 관조하며 그 규모와 형상을 실감나게 표현하였는데, 전체 산의 벽면을 바라보며 표현하길 나무들이 마치 아름답게 수놓은 무늬같

18) 「遊驪山記」, 袁宏道, 앞의 책, p.1467.

19) 「吼山」, 袁宏道, 앞의 책, p.447.

20) 「華山後記」, 袁宏道, 앞의 책, p.1472.

이 예쁘게 얹혀 있다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신기의 창작 방법을 통해 비유의 수사기교 중 은유의 기법을 사용해 화산의 전체 산 모습을 생동감 있게 형상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원굉도는 「상방(上方)」에서 소주(蘇州) 부근의 상방산과 호구산 두 산의 특징을 비교하며 각 산의 장점을 잘 표현해 나타내었는데, 살펴보면

상방산은 호수 가에 자리하고 있어 호구산 보다 크게 보이니, 어찌 태호 때문이 아니겠는가? 봉우리가 화살촉처럼 모이고, 층층이 일어나는 물결과 비취빛의 산이 중첩되어 있는 것으로 말하면, 호구산도 역시 그 나름대로 아름답다. 발길을 옮겨 정자에 기대니, 사람으로 하여금 도리어 일천경이나 되는 구름을 생각나게 만든다.

上方踞湖上, 其觀大於虎丘, 豈非以太湖故耶? 至於峰巒攢簇, 層波疊翠, 則虎丘亦自佳. 徙倚孤亭, 令人轉憶千頃雲耳.²¹⁾

원굉도는 이와 같이 상방산과 호구산의 아름답고 멋진 두 산 산세의 웅장함을 한마디로 하늘에 가득 펼쳐진 광대한 일천 경의 구름에 비유하고 있다. 신기의 창작 방법을 통해 비유의 수사기교 중 은유의 기법을 사용해 두 산의 형상을 한마디로 생동감 있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원굉도는 「운봉사지천지사기(雲峯寺至天池寺記)」에서 운봉사를 떠나 여산(廬山)을 오르며 보인 산 속의 모습을 소개하고 천지사의 자연 속의 멋진 형상과 자연의 웅장함을 잘 표현해 나타내었는데, 살펴보면

불당이 매우 화려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쇠로써 지붕을 덮었고, 한 줄기 시내는 푸른 빛이 넘쳐나며 서늘하게 섬돌 아래로 흘러 내려갔다. 조금 안정한 뒤에 바로 문수대(文殊臺)에 올라 응견배(鷹見背)를 반석으로 삼아 아래를 내려다보니, 일천 경의 경관이 하나의 잔에 불과해 보였다.

佛廬甚華整, 覆以鐵, 一溪漲綠, 泠然墜下. 稍定, 乃上文殊臺, 俯盤鷹見背, 千頃一杯.²²⁾

원굉도는 이와 같이 천지사의 아름답고 화려하게 잘 배치되어진 모습을 적고 이어서 산 위에서 내려다 본 멋진 일천 경이나 되는 광활함이 한마디로 하나의 잔과 같다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눈앞에 보인 광활한 자연의 웅장함이 너무나 엄청난 수준임을 역설적 은유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신기의 창작 방법을 통해 비유의 수사기교 중 은유의 기법을 사용해 자연 경관의 웅장한 형상을 한마디로 생동감 있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원굉도는 자연경관의 형상에 대한 묘사를 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으로부터 알게 되는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였다. 「어교장(御敎場)」에서 너무 높은 곳에 오르다보니 서호의 절경이 오히려 왜소해 보여 그 대단한 규모가 반감되어버리는 자연의 이치를 표현해 나타내었는데, 살펴보면

21) 「上方」, 袁宏道, 앞의 책, pp.159-160.

22) 「雲峯寺至天池寺記」, 袁宏道, 앞의 책, p.1138.

나는 서호(西湖)의 경관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욱더 절경이라고 생각한다. 높이 올라오니 나무숲이 벌어지고 산이 메말랐으며 초목은 헐벗고 바위는 민머리이다. 일천 경이나 되는 서호의 물빛이 술잔 마냥 축소되어 버린다. 북고봉(北高峯)·어교장(御教場)이 바로 그런 양상이다.

余爲西湖之景，愈下愈勝，高則樹薄山瘦，草髡石禿，千頃湖光，縮爲杯子，北高·御教場是其樣也.²³⁾

원굉도는 이와 같이 서호에서 높이 올라와 보인 높은 산의 다소 황량한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북고봉이나 어교장처럼 높은 곳에 올라 아득히 아래를 굽어보면 눈앞이 광활하여 그럴 수 밖에 없는 자연스런 모습을 얘기하면서, 일천경이나 되는 서호 호수 물의 멋진 모습도 한 낮 작은 존재에 지나지 않아 그 가치를 느낄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다. 이런 자연스런 섭리를 표현함에 있어서 아무리 멋들어지고 광활한 서호일지라도 너무 높이 올라서 보면 그 모습이 한마디로 하나의 작은 술잔에 불과하다고 하는 은유적으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 신기의 창작 방법을 통해 비유의 수사기교 중 은유의 기법을 사용해 자연스런 이치를 상징적 추상적으로 표현하여 더욱 그 이치를 가슴속에 느끼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원굉도는 단순히 자연경관의 웅장하고 위대함만을 잘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행사 광경의 장관에 대해서도 자연경관을 묘사하듯이 그 장대한 광경을 잘 표현하였다. 「음징호(陰澄湖)」에서 한여름 음징호 뱃놀이 모습의 장관을 잘 표현해 나타내었는데, 살펴보면

동자문(童子門)에서 배를 내려 북쪽으로 1리를 가면 음징호(陰澄湖)이다. 호수의 삼면이 바람을 타고 매번 한여름이 되면 놀잇배가 기라성(綺羅星)처럼 얹히어 매일 백여 척보다 적지 않다. 옥같이 고운 손목과 푸른 눈썹의 미녀들이 아름답게 노래하고 박판(拍板)을 느리게 치면서 오가기도 하고 늘어서서 경박하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 역시 멋진 놀이다.

繇童子門下船，北去一里，爲陰澄湖。湖三面受風，每盛夏時，遊舟綺錯，日不下百餘艘。玉腕青眉，嬌歌緩板，來往羅泊中，亦勝遊也。²⁴⁾

원굉도는 이와 같이 음징호에서 펼쳐지는 뱃놀이의 규모를 기라성(綺羅星) 즉 하늘의 무수한 별에다 은유적으로 비유하여 그 정도를 짐작하게 하고 있다. 신기의 창작 방법을 통해 비유의 수사기교 중 은유의 기법을 사용해 음징호 호수의 뱃놀이 광경을 생동감 있게 형상적으로 잘 표현하여 그 규모를 느낄 수 있게 한 것이다.

원굉도는 비유적 표현을 작품에 활용함에 직유의 수사기교 뿐만 아니라 이상과 같이 은유의 수사기교 또한 적절히 잘 사용하여 유기산문 작품의 예술적 수준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다. 이러한 은유의 수사기교의 활용 역시 그의 신기 창작 이론이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결국 원굉도 유기산문에서 은유의 수사기교는 신기의 창작방법을 통해 작품에 활용된 것이라 하겠다.

23) 「御教場」, 袁宏道, 앞의 책, p.435.

24) 「陰澄湖」, 袁宏道, 앞의 책, p.168.

(3) 의인(擬人)

원굉도 유기산문에서 신기의 창작방법을 통해 수사기교가 작품에 잘 활용된 것으로 직유와 은유의 비유적 기교 외에 또 의인의 수사기교를 들 수 있겠다. 사실상 사물을 사람에 비견해 표현하는 의인화 기교는 높은 예술적 상상력과 창작이론이 작가에게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원굉도는 그의 유기산문 작품 창작에 신기의 창작방법을 통해 의인의 수사기교를 잘 사용하여 작품의 예술적 품격을 더해주고 있다.

원굉도는 「화산기(華山記)」에서 화산 각 봉우리의 위치와 모습을 상징성 있게 묘사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선장벽(仙掌壁)을 지나 바위 사이로 꺾어 들어가 북쪽으로 돌아 올라가니 바위는 미끄러운데 계단이 없는 곳이 바로 동봉(東峯)이다. 평평한 곳을 지나 낭떠러지를 올라가니 길이 높게 이어지다 가운데가 끊어져 있는 곳이 남봉(南峯)이다. 봉우리를 더듬으면서 다리를 구불구불거리며 올라가니 바위가 나뭇잎처럼 위를 덮고 옆으로 갈라져 있는 곳이 서봉(西峰)이다. 남봉은 동봉과 서봉의 두 봉우리 위에 걸터앉아 있는데, 마치 사람이 위태롭게 앉아 두 무릎을 쭉 뻗고 있는 듯하다.

踰仙掌壁，折入石弄，北旋上，石滑而不綴，爲東峯。過坪躡厓，道尊持而中斷，爲南峯，度峯足蜿蜒上，石葉上覆而橫裂，爲西峯，南峯踞兩峯之上，如人危坐而雙引其膝。²⁵⁾

원굉도는 이와 같이 화산의 전체 모습 속에서 각 봉우리가 지닌 그 봉우리만의 위치와 특징을 생동감 있게 잘 표현하고 있다. 길이 높게 이어져 있다가 가운데가 끊어져 있는 곳이 남봉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남봉의 형상을 사람에 비견하여 동봉과 서봉 두 봉우리 위에 걸터앉아 있는 듯하다고 하면서 그 형상을 사람이 위태로이 앉아 두 무릎을 쭉 뻗고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였다. 사물의 형상을 마치 사람이 행위를 하는 것처럼 묘사한 것인데 화산 남봉의 특이한 멋진 모습을 사람에 비유하여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의인의 수사기교가 비유의 수사기교와 함께 사용된 것으로²⁶⁾ 신기의 창작 방법이 활용되었기에 가능한 표현이라 하겠다. 이러한 수준 있는 창작기교를 사용해 화산의 자연 경관을 생동감 있게 사람처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의인의 수사기교가 비유의 수사기교가 함께 사용되어진 것은 다른 작품에서도 볼 수 있다. 「상방(上方)」 작품을 보면 호구산과 상방산의 서로 다른 아름다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호구산은 아리따운 여인네가 농염하게 화장을 하고 주름발에 가려져 비추이는 것 같고, 상방산은 갈옷을 걸친 도사처럼 여유로운 풍모가 특별히 수려하다.

虎丘如冶女豔妝，掩映簾箔；上方如披褐道士，丰神特秀。²⁷⁾

25) 「華山記」, 袁宏道, 앞의 책, p.1469.

26) 謝運生·吳世偉, 「明代游記大家袁宏道作品成就探微」, 『皖西學院學報』, 2005, p.118.

27) 「上方」, 袁宏道, 앞의 책, p.160.

여기서 원굉도는 사람의 정적인 모습으로 그의 눈에 비친 두 산의 형상을 의인화하고 있다.²⁸⁾ 호구산을 아름답게 단장한 여인네가 주름발에 가려 비쳐지는 듯한 모습을 호구산의 형상에 비유하고 있고, 갈옷을 걸친 도사의 형상을 상방산에 비유하면서 호구산과 상방산이 지닌 각기 다른 특징적인 아름다움을 잘 묘사하였다. 서로 다른 아름다움을 가진 두 자연 경관을 자신에게 보이고 느껴진 감성 그대로 직기의 방법으로 그 특징을 적어 사람에 비유하며 ‘如’의 직유 수사기교를 통해 잘 표현하고 있다. 이 역시 원굉도가 의인과 비유의 수사기교를 함께 사용한 것이다.²⁹⁾

원굉도는 「유사신암지문수사자암기(由捨身巖至文殊獅子巖記)」에서 바위를 좋아하는 자신의 취향을 얘기하면서³⁰⁾ 사신암(捨身巖)에서 문수암(文殊巖)을 거쳐 사자암(獅子巖)까지 이르는 과정의 멋진 바위 형상을 서술하고, 사자암 맞은편 철선봉의 특징적 모습을 사신암, 사자암과 비교하며 잘 표현해 나타내고 있다. 그 중 철선봉 묘사부분은 생동감이 흘러넘치는데 살펴보면

철선봉(鐵船峯)은 그 앞에 마주하고 있는데 자줏빛 칼날 같은 형상이 대단히 매섭기만 하다. 우뚝 솟아 있음은 마치 사나운 병사가 서로 치고 박고 싸워 그 뼈를 드러낸 듯하다. 싸우다 지쳐버려 적과 힘을 다해도 승부가 나지 않게 되자, 두 병사 모두 몸을 고쳐 세워 한 걸음 물러나 서서 어금니를 갈고 수염을 흘날리며 노려보고 있는 듯하다.

鐵船峯當其面，紫鏑凌厲，兀然如悍士之相撲，而見其骨，及鬪困力敵不相下，則皆危身却立，摩牙裂髭而望。³¹⁾

원굉도는 이와 같이 철선봉의 형상적 특징을 세밀하고도 생동감 있게 잘 표현하고 있다. 모든 모습 하나하나를 임진불퇴 정신으로 싸움에 임하는 병사의 형상에 비유하여 묘사하고 있다. 싸우는 형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듯하여 철선봉의 강렬한 투쟁적 기세까지 느낄 수 있게 한다. 사물의 형상을 사람의 특징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으로 신기의 창작기교를 통해 의인의 수사기교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작가의 개성적 성령이 작용하여 사물 경관의 실체적 모습을 느껴진 그대로 묘사한 것이라 하겠다.

원굉도는 「유반산기(遊盤山記)」에서 반산의 모습을 의인의 수사기교를 사용하여 인체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반산(盤山)은 바깥은 뼈이지만 안쪽은 살갓이다. 가파른 바위가 위태로이 서 있어서, 바라보면 마치 창과 칼날, 곰과 호랑이가 우글대는 숲과 같다.

盤山外骨而中膚。外骨，故峭石危立，望之若劍戟羆虎之林。³²⁾

28) 陈文忠, 「柳宗元与袁宏道山水游记散文的艺术风格比较研究」, 『四川师范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2001, p.56 참조.

29) 谢运生·吴世伟, 「明代游记大家袁宏道作品成就探微」, 『皖西学院学报』, 2005, p.118 참조.

30) 「由捨身巖至文殊獅子巖記」: “野性癖石”, 袁宏道, 앞의 책, p.1140.

31) 「由捨身巖至文殊獅子巖記」, 袁宏道, 앞의 책, p.1141.

32) 「유반산기(遊盤山記)」, 袁宏道, 앞의 책, p.688.

원굉도는 이와 같이 반산의 모습을 인체에 비유해 표현하고 있다. 반산의 맑은 사람의 뼈에 비유하고, 안쪽 가운데는 사람의 살결에 비유하여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반산의 구성이 바깥 부분은 가파른 바위로 이루어져 있음을 사람의 외관적 틀을 뼈가 구성하고 있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거대한 반산을 한 눈에 다 볼 수 없지만 그 전체적 구성은 인체의 뼈와 살결에다 비견해서 상상해보면 그 대강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생동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 신기의 창작방법이 바탕 되어 있기에 이런 표현이 의인의 수사기교를 통해 표현 가능한 것이다.

원굉도는 단순히 사물을 사람에 비유한 의인의 수사기교 외에 사물의 형상을 동물에 비유하는 의인의 수사기교를 사용하기도 했다. 「비래봉(飛來峯)」 작품을 보면 알 수 있겠다. 이 작품에서 이전에도 다섯 번이나 올랐던 비래봉의 형상에 대해 그 특징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서호(西湖)의 여러 봉우리 중에서 당연히 비래봉(飛來峯)이 으뜸일 것이다. 높이는 수십 장(丈)정도이지만, 푸른 비취빛으로 옥처럼 솟아있다. 목마른 호랑이나 질주하는 사자의 모습으로도 봉우리의 성난 형상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다.

湖上諸峯，當以飛來爲第一，高不餘數十丈，而蒼翠玉立。渴虎奔猊，不足爲其怒也。³³⁾

원굉도는 이와 같이 서호 비래봉의 성난 모습 같은 위엄 있는 형상적 특징을 생동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사물의 형상을 사람이나 동물에 비견한 의인의 수사기교인데, 사람의 표정은 물론이고 호랑이나 사자 같은 사나운 동물의 모습으로도 표현하기 힘든 품격 있고 위엄 있는 성난 모습을 형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기의 창작방법이 있기에 가능한 표현으로 사물의 형상을 동물에 비유한 의인의 수사기교로써 그 광경이 실감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원굉도는 또한 사물의 형상 묘사를 사람의 감정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송유 제이(嵩遊第二)」을 보면, 송산의 폭포를 세 번째 보는 폭포라고 하며 그가 본 오설산 폭포, 여산폭포와 함께 세 폭포의 특징을 먼저 묘사하고³⁴⁾ 이어서 등봉령(登封令)인 부원정(傅元鼎)의 말에 답하면서 산과 폭포라는 사물의 계절별 형상적 특징을 의인화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살펴보면

내가 말하길, “그렇군요. 옛 사람이 이르길, 여름 산은 물이 똑똑 떨어지는 듯하고 겨울 산은 잠을 자는 듯 하다고 하였는데, 이 폭포 역시 그러했군요. 여름의 폭포는 성난 듯하고 겨울 폭포는 기쁜 듯하다 했습니다”

余曰：“然，古人謂夏山如滴，冬山如睡，瀑亦有之。夏瀑如怒，冬瀑如喜”³⁵⁾

33) 「飛來峯」, 袁宏道, 앞의 책, p.428.

34) 「嵩遊 第二」: 余曰; “三見之矣. 見于五泄者, 如奔雷, 其觀偉. 見于黃岩者, 如立玉, 其觀逸. 若夫蒼寒霏微, 簾披綃曳, 此爲最幽矣.”, 袁宏道, 앞의 책, p.1477.

35) 「嵩遊 第二」, 袁宏道, 앞의 책, p.1477.

원굉도는 이와 같이 숭산 폭포를 소개하는데 산이나 폭포 같은 자연 만물의 계절별 특징을 얘기하면서 사람의 감정표현을 하듯 의인화하여 형상적으로 생동감 있게 잘 표현하고 있다. 그 형상적 모습을 특징 지워서 잠자고(睡) 화내고(怒) 기뻐하는(喜) 사람의 감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신기의 창작방법을 통해 의인의 수사기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원굉도는 「유천지유함파령지삼협간기(由天池踰含嶠嶺至三峽澗記)」에서 함파령을 넘어 삼협 계곡으로 가는 길에 보인 경관을 묘사하고 마침내 삼협교(三峽橋)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삼협 계곡물의 거센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계곡물이 달려가듯 흘러 내려가 큰 돌과 부딪쳐 펼쳐 돌아가는 것이 성이 난 듯 하였다. …… 잠시 쉬었다 다시 계곡물을 따라 흘러가니 큰 바위들이 우뚝하고 기괴하여 혹은 잠자는 것 같고 혹은 서 있는 모습 같다. 여울물이 그것을 흔들어대니 온 계곡물이 다 울부짖으며 격하게 흘러가고 섬의 물풀과 물가의 풀이 모두 성난 모습이었다.

澗水奔流而下，展轉與大石觸，方怒，……稍定，沿溪行，巨石巍怪，或眠或立，湍水撼之，一澗皆吽號砰激，嶼毛沍草，咸有怒態³⁶⁾

이처럼 원굉도는 삼협 계곡물의 도도하고 거세게 흘러가는 모습을 사람의 감정을 이입한 의인의 수사기교로 표현해내고 있다. 계곡의 물결이 거침없이 바위들을 치면서 흘러가는 형상을 성난(怒)듯하다 울부짖는(吽號)것 같다고 하며 사람의 감정표현으로 그 기세를 생동감있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우뚝 솟아 있는 바위의 형상을 잠자는듯하다 서있는 듯하다고 하며 사람의 생리현상과 모습으로 의인화하여 그 형세를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이런 모습표현 모두를 신기의 창작방법을 통해 아예 사물의 형상 자체를 의인화하는 수사기교를 사용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원굉도는 「유록라산지도원현기(由淥羅山至桃源縣記)」에서 도입부에 록라산 일대부터 시작되는 멋진 자연 경관을 의인의 수사기교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이 일대에서 부터의 산들은 모두 날아서 춤추며 살아 움직이듯 강물에 비쳐 드러나고, 물은 옥색과 초록색을 띠며 바닥을 드러내었다. 백마강(白馬江)에 이르니 산은 더욱 끼는듯하고 물은 더욱 좁아졌다. 구름은 내달리고 바위는 성난 듯하다.

從此一帶，山皆飛舞生動，映江而出，水縹綠見底。至白馬江，山益夾，水益東。雲奔石怒。³⁷⁾

원굉도는 이와 같이 록라산 일대부터 이어지는 산들의 형상을 신기의 표현방법을 통하여 의인의 수사기교를 활용하여 특징적으로 생동감 있게 잘 표현하고 있다. 산들의 형상을 날아 춤추며 살아 움직이는듯하다고 하며 사물의 형상을 생물체의 동작으로 나타내는 의인적 표현을 하였다. 또 구름이 내달리고 바위가 성난 듯하다고 하며 역시 사물의 모습을 사람의 동작과 감정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 창작에 있어 원굉도는 신기의 창작방법을 통해

36) 「由天池踰含嶠嶺至三峽澗記」, 袁宏道, 앞의 책, pp.1142-1143.

37) 「由淥羅山至桃源縣記」, 袁宏道, 앞의 책, p.1152.

의인의 수사기교를 사용하여 사물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원굉도는 「개선사지황암사관폭기(開先寺至黃巖寺觀瀑記)」에서 개선사(開先寺) 폭포의 모습을 의인의 수사기교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여산(廬山)의 얼굴은 남강에 있는데 수 십리가 다 절벽이다. 물이 절벽 틈사이로부터 나와 만 길 아래로 곧바로 떨어지니 그 형세가 뽕뽕이 채워진 것이 뛰여 춤추듯 하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나는 듯 떨어지는 폭포는 많지만 개선사의 폭포가 절경이다.

廬山之面，在南康，數十里皆壁。水從壁罅出，萬仞直落，勢不得不森豎躍舞，故飛瀑多，而開先爲絕勝。³⁸⁾

원굉도는 이와 같이 가파르게 벽면을 뽕뽕이 채워 가득히 흘러내리는 폭포의 멋진 광경을 뛰고 춤추는 듯하다고 하며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의인화 되어져 표현된 개선사 폭포의 형상이 너무나 역동적인 절경이라 다른 어떤 폭포보다 생동감이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사물의 멋진 특징을 원굉도가 신기의 창작방법을 통해 의인의 수사기교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이다.

원굉도는 「화산후기(華山後記)」에서 개선사 폭포의 모습을 의인의 수사기교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희이협(希夷峽)에 이르면 바위가 홀연히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구름을 쓰다듬고 해를 껴매고 있듯 누르고 포개어 진 채로 위를 향해있다. 큰 바위가 겹겹이 시냇물 가운데 누워 있어, 물이 곧바로 흘러가지 못하고 솟구쳐 춤추고 날고 울어대어 벌어진 틈 안에서 산과 기이함을 다룬다.

至希夷峽，石忽具態，摩雲綴日，壓疊而上行，大石纍纍臥澗中，水不得直去，則躍舞飛鳴，與山爭奇于一罅之內。³⁹⁾

원굉도는 이와 같이 시냇물 가운데 겹겹이 포개어 놓여 진 큰 바위들의 모습을 사람이 누워있듯 누워있다고 표현하고 또 물의 형상을 춤추고 울어댄다고 하며 생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사물의 모습을 신기의 창작방법을 통해 의인의 수사기교를 사용하여 의인화시켜 그 광경을 더욱 실감나게 형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원굉도는 직유와 은유 등의 비유의 수사기교 뿐만 아니라 의인의 수사기교를 사용하여 작품의 예술적 수준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다. 이러한 의인 수사기교의 생명력 있는 활용은 높은 수준의 신기 창작이론이 뒷받침 되어 원굉도의 사유를 통해 가장 생동감 있는 적절한 작품으로 표현되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높은 예술적 수준의 창작방법과 최고의 수사기교가 작품에 적절하게 활용된 것이라 하겠다.

38) 「開先寺至黃巖寺觀瀑記」, 袁宏道, 앞의 책, p.1144.

39) 「華山後記」, 袁宏道, 앞의 책, p.1471.

3. 맺음말

원굉도는 산수 유람을 하며 눈앞에 보인 경관과 경물에 대한 형상과 느낌을 유기산문 작품으로 잘 창작해 내었다. 자연에 대한 이런 감상을 작품으로 창작함에 다양한 수사기교를 사용해 생동적이고 감동적인 묘사를 하여 작품의 예술성을 높여 주었다. 특히 자연경관의 다양한 묘사와 표현에 직유와 은유 등의 비유와 의인의 수사기교를 가장 폭넓고도 수준 있게 잘 활용하였다.

원굉도 유기산문 속의 이러한 비유와 의인의 수사기교 활용은 원굉도의 신기라는 높은 수준의 창작이론이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신기의 창작이론을 활용하여 좋은 작품을 창작해 내었는데 이 자유로운 생명력을 지닌 신기 창작기교는 원굉도 유기산문 창작 모든 부분에서 물이 스며들 듯이 자연스레 배여있다고 하겠다.

결국 원굉도는 다양한 수사기교를 통해 그가 표현하고자 한 유기산문의 대상을 깊은 사유를 통해 생동감 있게 묘사해 내었는데 모든 면에서 신기 창작이론이 높은 예술적 성취를 이루는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袁宏道 著, 錢伯城 箋校, 『袁宏道集箋校』,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態禮匯 選註, 『袁中郎小品』,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96.
 蔣松源 主編, 『歷代小品山水』, 北京: 崇文書局, 2010.
 馬美信 編選, 『晚明小品精粹』,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1997.
 楊 義 主編, 『明清小品選評』, 長沙: 嶽麓書社, 2006.
 吳承學, 『晚明小品研究』,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98.
 章培恒·安平秋·馬樟根 主編, 『三袁詩文選譯』, 南京: 鳳凰出版社, 2011.
 趙伯陶 編選, 『袁宏道集』, 南京: 鳳凰出版社, 2009.
 鍾林斌, 『公安派研究』, 沈陽: 遼寧大學出版社, 2001.
 吳言生·鄭繼猛 解評, 『三袁集』, 太原: 三晉出版社, 2008.
 姜炅範, 『袁宏道散文研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1.
 易聞曉, 『公安派的文化闡釋』, 齊南: 濟魯書社, 2003.
 陳文忠, 「柳宗元與袁宏道山水遊記散文的藝術風格比較研究」, 『四川師範學院學報: 哲學社會科學版』, 2001.
 謝運生, 吳世偉, 「明代遊記大家袁宏道作品成就探微」, 『皖西學院學報』, 2005.
 覃啓軍·陳冬梅, 「從『西湖遊記』二則看袁宏道山水遊記的審美價值」, 『中國語文教學』 2002.05.
 賀付開, 「論袁宏道的審美觀及其遊記藝術」, 『中國文學研究』, 2000年第2期.
 孫 虹, 「袁宏道小品文: 邊緣文體中心化創作」, 『福建師範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2006年第1期.
 甘 玲, 「性靈化的山水——讀袁宏道的『西湖(一)』」, 『中學教學研究』, 2003.02.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袁宏道, 袁宏道的文學創作論, 新奇創作論, 袁宏道游記散文, 袁宏道游記散文的修辭技巧		
	영문	Yuan Hong-dao, The Literary Creative Theory of Yuan Hong-dao, 'Xin Qi' Creative Theory, Yuan Hong-dao's Landscape Essay, Rhetorical Technique of Yuan Hong-dao's Landscape Essay		
<div>A Study on Yuan Hong-Dao's 'XinQi' Creative Theory and Rhetorical Technique in Landscape Essays</div> <div>Nam, Duk-Hyun</div> <p>In the late Ming Dynasty, the Gong-an School, a literary group was led by Yuan Hong-dao. Yuan Hong-dao was the leader of the Gong-an School. Yuan Hong-dao exerted a grea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late Ming literary criticism. The literary theory of Yuan Hong-dao is very important in the late Ming literary world. The late Ming essay have very special meaning in chinese classical prose. Yuan Hong-dao's essay is a part of the late Ming essays. The landscape essay is one of the important parts in Yuan Hong-dao's essays. Yuan Hong-dao's landscape essay has many rhetorical techniqu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XinQi' creative theory and rhetorical technique of Yuan Hong-dao in his landscape essays. We believe that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bout 'XinQi' creative theory and rhetorical technique of Yuan Hong-dao in his landscape essays will bring us the right direction to understanding of Yuan Hong-dao's literature and literary criticism.</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남덕현 / 南德鉉 / Nam, Duk-Hyun		
	소 속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Em@il	dhnam@pusan.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8년 09월 01일	심 사 일	2018년 09월 06일
	수 정 일	2018년 09월 17일	게재확정일	2018년 09월 22일